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힘내라 대한민국

2021년 1월 18일(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.18.(월)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1. 15.(금)	담당부서	전자전기과
담당과장	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정석진 과장(044-203-4260)	담 당 자	임철성 사무관(044-203-4263) 손민경 사무관(044-203-4269)

'20년 K-배터리 5년 연속 수출 신기록

- 박진규 산업부 차관, 이차전지 기업 ㈜미섬시스텍 방문 -

- '20년 K-배터리 시장점유율 2배로 성장, '21년 생산(32%), 수출(5.7%) 모두 지속 성장 전망 -

1 ㈜미섬시스텍 현장 방문

□ **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**은 **1.18(월) 이차전지솔루션 기업 미섬시스텍**을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하면서 **이차전지 산업**에 대한 **정부**의 **육성의지**를 강조했다.

○ 미섬시스텍은 이차전지 검사장비를 시작으로 이차전지 배터리관리 시스템(BMS), 배터리팩을 생산하고 있으며,

○ 최근 **전기이륜차 배터리 교체형 플랫폼용 배터리팩 개발**을 완료('20.12월)했다.

< ㈜미섬시스텍 방문 개요 >

◈ 일시 / 장소 : '21.1.18일(월) 10:00 / 미섬시스텍(안양시 동안구)

◈ 참석자 :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차관, 천창열 ㈜미섬시스텍 대표이사 등

◈ 주요내용 : 미섬시스텍 생산현장 방문,
전기이륜차 배터리 교체형 플랫폼 시연

□ **배터리 교체형 플랫폼**은 퍼스널 모빌리티(PM, Personal Mobility, 전기이륜차, 전기자전거, 킥보드 등) 배터리를 개별 충전기 대신 **공용 충전설비**를 통해 **안전하게 충전**, 배터리를 **효율적으로 관리**하는 시스템으로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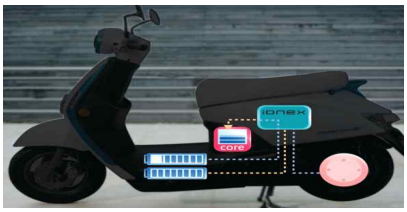
○ **짧은 주행거리, 긴 충전시간, 배터리간 호환성** 등 기존 전기이륜차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.

< 배터리 교체형 플랫폼 구성 >

스테이션(충전기)



전기 이륜차



교체형 배터리



□ 박 차관은 "지난해 국내 이차전지 산업은 글로벌 전기차 수요 확대를 기반으로 크게 성장하고, **국내 기업 시장점유율도 크게 확대**되어

○ BIG3(시스템반도체, 바이오헬스, 미래차)에 이어 **미래 먹거리 산업**으로 **위치**를 **공고**히 하였다"라고 평가하였다.

○ 또한 박 차관은 "모빌리티를 비롯해 가전·로봇·드론 등 **다양한 분야**의 **수요**가 확대됨에 따라, **이차전지 산업**이 더욱 **성장**할 것으로 **기대**"된다면서

□ "산업부는 이차전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**기술개발·실증, 안전성 기술, 표준화**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"이라고 밝혔다.

2 '20년 이차전지 성과 및 '21년 전망

◈ 국내 3사 전기차 배터리 **시장점유율 2배 이상** 증가('19년 16% → '20년 34%)

◈ 생산(23.3조원), 수출(65.7억불), 내수(5.3조원) 모두 증가, **5년 연속 수출 증가**

□ **(주요 지표)** 한국전지산업협회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**'20년 이차전지*** **생산·수출·내수 등 주요지표는 크게 상승**했다.

* 리튬이온배터리(HSCODE 8507.60), 납축전지(8507.10, 8507.20)를 포함하고, 부분품(8507.90) 제외

○ **'20년 국내 기업의 글로벌 이차전지 생산규모는 23.3조원**으로 (리튬이온배터리 20.6조원 등) **'19년 19.4조원 대비 20% 확대**되었고,

* 국내 이차전지 생산은 10.6조원으로 '19년 대비 3.3% 확대

○ **수출은 7.22조원(65.7억불, 2.9%↑)으로 5년 연속 증가**하였으며 **전기차용 리튬이온배터리**('19년 1.1조원, 10.4억불 → 1.3조원, 11.5억불, 10.6%↑)가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.

○ **내수도 전년대비 11.6% 증가한 5.27조원**으로 **국내 전기차 생산 증가**('19년 10.3만대 → '20년 13.9만대, 33.8%↑)에 따라 **전기차용 리튬이온배터리 수요가 함께 증가**한 것이 큰 요인이다.

○ 세계 전기차(EV) 시장규모가 확대*되면서 전기차용 리튬이온배터리 중심으로 국내 기업의 생산·수출·내수 등이 모두 증가했으며

* '19년 2.3백만대 → '20년(1~11월 누적) 2.5백만대 (출처 : SNE 리서치)

- 이는 우리 기업들이 **유럽·미국·중국 등 주요국에서 급성장하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**로 평가된다.

□ **(글로벌 시장점유율 확대)** LG에너지솔루션, 삼성SDI, SK이노베이션 등 **국내 주요 이차전지 생산업체의 시장점유율도 크게 향상**되었다.

○ '20년 11월 기준 **3사의 시장점유율*을 합친 규모는 34%**로, **'19년 16%에 비하면 2배 이상** 늘어난 수치이다.

< 주요기업 전기차 배터리 시장점유율 순위 (출처 : SNE 리서치) **>**

순위	'19년	'20년(11월)
1	CATL(中)	CATL(中)
2	파나소닉(日)	**LGES(韓)**
3	**LGES(韓)**	파나소닉(日)
4	BYD(中)	**삼성SDI(韓)**
5	**삼성SDI(韓)**	**SK이노베이션(韓)**

◈ **(21년 전망) 생산 31조원**(32% 증가), **수출 70억불**(5.7% 증가) 최고치 경신 전망

○ 유럽, 미국, 중국 등 **주요국의 친환경정책*** 영향으로 전기차, ESS등 전방산업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차전지 수요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.

* (미국) 바이든 신정부 에너지정책 강화 전망(파리협정 재가입, 2050년 탄소중립 등), (유럽) 2050 탄소중립('19.12월 그린딜) 추진, (중국) 2060년 이전 탄소중립 달성 선언('20.9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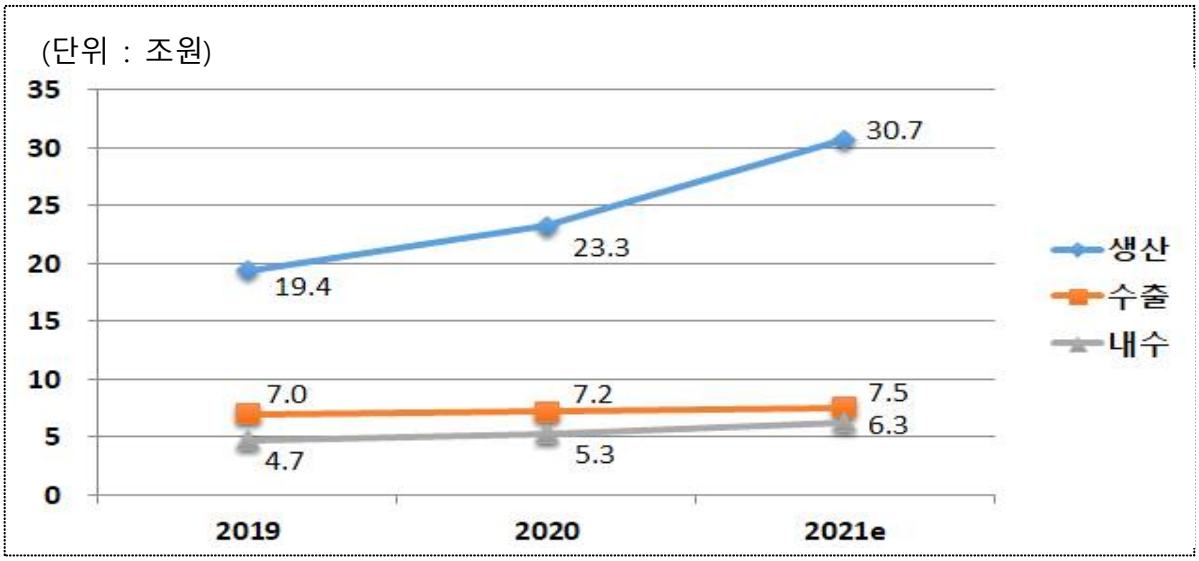
- 이차전지 시장 확대에 대응하여 **경쟁적 설비투자 확대,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*** **등 경쟁이 가열**되고 있으나 당분간은 **한국·중국·일본의 상위 6개 기업 중심 체제가 지속**될 것으로 보인다.

* 스웨덴 N社 등 신규업체 진입은 '23년 이후 본격화 될 전망

○ **'21년 국내 기업의 이차전지 생산액은 30.7조원**으로 '20년 23.3조원 대비 32.0% 증가하고, **수출 또한 5.7% 증가한 70억불**으로 전망된다.

○ **전기차 전용 플랫폼**(현대 E-GMP) **및 신모델 출시*** 등으로 **'21년 이차전지 내수 규모는 6.3조원**(19.8%↑)으로 전망된다.

* (현대) 아이오닉5(E-GMP), 제네시스 G80 EV, JW(E-GMP), (기아) CV(E-GMP), (쌍용) E100 등

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임철성 사무관(☎044-203-4263), 손민경 사무관(☎044-203-4269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